

〈대담〉

## 김유성 교수 정년기념대담

일 시 : 2006. 3. 4.(토요일) 18:00~20:00

장 소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610호 연구실

대담자 : 이흥재(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이철수(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이흥재** : 선생님께서는 지난 2월 말로 36년간 봉직하시던 모교에서 정년을 맞으셨습니다. 서울대학교 법학지에서는 이를 기념하여 선생님께서로부터 지난 36년간의 학문세계와 대학교수 생활에 대한 회고담을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시간을 내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38년간 서울대학 법과대학 교수로서 봉사하신 지난 세월에 대한 소감이랄까 감회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유성** : 글썽요. 그 동안 우리의 현대사가 파란만장하다고 표현할 정도로 급격하게 변해 왔기 때문이라서 그런지 교육자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게 엇그제 같은

데 훌쩍 정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일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게 마련입니다. 저도 예외가 될 수 없겠죠. 다만 서울대학교가 대한민국의 영재를 육성하고 이 시대의 사회적·민족적 요구를 적절히 수용해야 하는 중요한 지위와 역할을 가진 만큼, 평생을 여기에 몸담은 저로서는 아직도 힘이 닿는 대로 도와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흥재** : 아무래도 우선은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우리나라 사회가 어려운 시기에 대학생활을 보내셨고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을 맡기도 하셨는데 지금 상황과 비교하면 그 감회가 어떠하신지요. 그리고 학문의 세계에 관심을 가지게 된 동기랄까요, 특별한 계기 같은 것이 있었는지에 대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김유성** : 내가 학창시절을 보낸 60년대 초반은 우리나라의 근대화가 갖 시작한 때라서 물질적 환경은 매우 열악하였지요. 그러면서도 4·19혁명의 위업을 달성하고 그 중심에 지식인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깨어 있는 맑은 지성이 이 사회의 소금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학은 선망의 대상이었고 그만큼 일반 국민들이 대학·교수·학생들에게 거는 기대는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당시 학생회장을 맡게 된 기본적 동기는 5·16 군사정권에 대한 불만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72년 이후의 유신과 80년의 제 5공화국에 비하면 그 당시 군사정권의 실체가 선명하게 드러난 상황은 아니었지만, 4·19가 가지는 역사적 의미를 물리적 폭력에 의해 유린하는 행위를 보고 젊은 학도로서 의분 같은 것이 생겼다고 할까요. 크게 보면 민주화에 대한 욕구가 작용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학문세계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를 굳이 말한다면, 글을 통해 이 사회의 발전과 민주화에 기여하고 싶었습니다.

**이철수** : 60년대에는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인 노사관계가 진전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일찍이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을 전공으로 택하신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요?

**김유성** : 네 그렇습니다. 학자에 따라 다소 논란이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61년부터 근대적 의미의 산업화가 시작되었다고 진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60년대의 초기 산업화 단계에서는 노사문제가 우리의 현실문제로 인식되지는 않은 상황이었죠. 제가 노동법에 관심을 가지게 된 이유는 일본 유학시절의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은 그 당시에 이미 노사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제기되었고 특히 이념적 스펙트럼이 다양하였기 때문에 동일한 노사문제를 두고 학자

들간에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일본에서는 누마다(沼田)의 진보학파가 주류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세계 가르침을 준 동경대학교의 이시카와(石川)와는 이와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에 학문적 호기심을 자극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죠. 그리고 우리도 멀지 않아 일본과 유사한 상황이 도래할 것으로 보고 학문적·이론적으로 준비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이흥재** : 일본 유학 후 곧바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봉직한 이후 38년간 학자로서 외길 인생을 살아 오셨습니다. 우리의 노사관계가 현정사만큼이나 우여곡절을 겪게 되는데, 학자로서 연구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지요?

**김유성** : 글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제 1의 덕목은 열심히 연구하는 일이겠죠. 70년대와 80년 초반의 시대상황이 암울했고 이로 인해 많은 학자들이 무력감 같은 것을 많이 느꼈을 겁니다. 이것이 순수 연구 활동보다는 사회적 실천 활동에 보다 신경을 쓰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겠죠. 제가 교수에 취임한 이후 상당기간 아직 한국의 노사관계가 본격적으로 형성되지 않았고 노동법의 정신이 현실에서 실종된 지경인 데다 주변의 교수나 학생들이 터무니없는 봉변을 당하는 일을 목도하면서, 교직에 대한 회의를 느낀 적이 많았습니다. 개인적인 고초도 겪긴 하였지만 지금 회상해 보면 대 사회활동에 그리 적극적이지 않는 편이었습니다. 외국의 노사관계나 노동법제의 흐름에 관심을 가지고 향후 예상되는 쟁점들에 대한 글들을 소개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이철수** : 선생님의 연구 활동이나 여타의 활동에 있어 1987년 노동자대투쟁 이후 부쩍 가속도가 붙었다는 점을 저희 제자들이 느껴 왔는데, 그 배경을 나름대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흥재** : 선생님의 가장 큰 업적 중의 하나로 서울대노동법연구회 활동을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선생님의 교수생활에서 연구회 활동의 의미를 평가하신다면?

**김유성** : 서울대노동법연구회를 빼고 저의 학문생활이나 교수생활을 이야기할 수 없겠지요. 여기 계신 두 분도 연구회 창립 이후 계속 참여하고 계시니 잘 아시겠습니다만, 연구회는 창립 이후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매달 정례 연구모임을 가졌고, 그 모임에는 학계와 실무계의 회원들까지 모두 매우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연구모임에서의 토론도 어느 모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진지하고 어떤 면에서는 치열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러한 연구회의 활동을 통해 저 자신도 많

은 공부를 하였고, 또 많은 훌륭한 분들이 나와서 지금 학계나 법조계 기타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계십니다. 참으로 흐뭇하고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철수** : 연구회는 상당한 준비를 거쳐 만들어 졌습니다. 아마도 한 4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대학원 박사과정에 입학하기 전인 1984년 말부터 노동법과 노동문제에 관심이 컸던 대학원생들과 사법연수원생들이 모여 노동법 및 노동관례를 공부하는 모임을 결성한 적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항상 상황을 점검하시고 저에게 필요한 사항들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3년이 경과할 무렵 선생님께서 직접 나서서 우리 모임을 지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후 1년 정도 관례공부와 등산을 통해 학문적·인간적 유대감을 강화하여 나갔고, 이것이 발전하여 1988년 봄에 연구회가 정식으로 발족하였습니다.

**이흥재** : 오랜 기간 동안 연구회 활동에 관심을 가지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김유성** :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선은 공동토론과 연구를 통해 회원들의 학문적 소양을 키우고 우리나라 노동법학과 노사관계 발전에 작으나마 기여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자 동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실에 적합한 노동법이론의 개발과 적용에 큰 역점을 두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근로자의 생존권보장이라는 노동법의 당위적 요청에 부합하지 않는 기계적인 해석론을 경계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복잡한 현안들을 선언이나 구호를 통해 단번에 해결하고자 하는 조류도 역시 경계하고자 하였습니다. 우리의 노동현실을 기초로 하여 객관적이고 설득력 있는 노동법이론을 개진하고 이를 통해 우리의 노동문화와 노동법학의 발전에 일조하는 것이 연구회의 실천적 과제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철수** : 서울대노동법연구회를 다른 연구 모임과 비교한다면 어떤 점을 특징으로 들 수 있겠습니까?

**김유성** : 다른 연구 모임을 잘 알지 못하니 쉽게 답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다만 제가 참석해 본 학회들과 비교하여 말씀드리다면, 가장 큰 특징은 역시 학계와 실무계의 균형을 들 수 있겠습니다. 요즘은 학계와 실무의 협력이 강조되고, 또 실제로 그렇게 활동하는 모임이나 단체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연구회는 창립 시부터 명실상부하게 학계와 실무계가 함께 참여하여 왔고, 또 토론 등 여러 활동과정에서도 어느 한쪽으로 기울지 않고 균형을 잘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다른 특징으로는 지속성을 들 수 있습니다. 연구회는 내후년이 되면

20년이 되는데, 그 동안 한 달에 한번 있는 정기 모임을 한 번도 거른 적이 없습니다. 모임 시간을 매월 셋째 토요일로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요.

**이흥재** : 연구회의 역사는 선생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바대로 20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그 오랜 시간동안 선생님께서 모임에 늦으시거나 불참한 기억이 없습니다. 연구회에 대한 애정이 그렇게 각별했던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지요?

**김유성** : 모임에 늦은 적은 몇 번 있죠. (웃음) 돌이켜 보면, 연구회를 시작할 당시 우리 사회는 큰 전환기에 있었습니다. 사회 전체가 권위주의시대에서 벗어나 민주화되는 시기이기도 하고, 제가 공부하던 노동법분야에서도 대등한 노사관계의 확립이 시대적 화두였죠. 그러니 노동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요구랄까 바람이 컸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 노동법의 학문적 성숙은 많이 부족했었지요. 실력과 책임감을 겸비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 그리고 내실 있게 공부를 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고, 이러한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철수** : 다른 활동에서도 그렇지만 선생님께서는 연구회의 활동에서도 균형감을 강조하셨고, 특히 토론에서는 중립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적으로셨는데요.

**김유성** :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많은 문제 중에는 자기와 다른 것에 대한 포용성의 부족이랄까 균형감의 부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몸담았던 법학과 노동 분야에서는 이론과 현실의 조화, 학자와 실무가의 협력, 노사관계에서의 균형감각 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연구회 활동에서 우선 학자와 실무가가 모두 자유로이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회원들이 현실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 사회에 적합한 이론을 찾아내는데 서로 도움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토론에서도 노사 어느 한쪽에 치우치거나 이론 또는 실무 한쪽이 주도하는 것을 항상 경계하였습니다.

**이흥재** : 연구회 활동에서 노동법연구의 발간을 빼 놓을 수 없는데요. 그 이야기를 좀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연구회의 활동이 본 궤도에 돌입하면서 1991년부터 『노동법연구』를 발간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로서는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김유성** : 연구회가 창립되고 2-3년이 지나면서 회원들 사이에서는 연구성과를 외부에 알리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들이 많아졌습니다. 『노동법연구』를 만들기 위한 준비는 1990년에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약 1년 정도의 준비를 거

쳐 1991년 5월에 창간호가 발간되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당시로서는 법학계에서 전국적인 규모의 학회들을 제외하고는 전문학술지를 발간하는 일이 드물었습니다. 더구나 우리는 외부의 지원을 전혀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학술지를 발간하려고 하다 보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여러 회원들의 노력으로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창간호를 내게 되었죠. 그 때의 어려움을 생각하면, 우리 창간호를 낸 출판사(도서출판 까치)의 박종만 사장님의 배려와 고마움도 잊을 수 없습니다.

**이철수** : 노동법연구가 1년에 1회 발간되다가 2001년부터는 1년에 2회로 늘어났습니다. 대략 십년정도 걸린 셈인데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김유성** : 노사관계가 역동적인 만큼 노동법의 발전도 역동적입니다. 1년에 1번 연구지를 발행하는 것으로는 현실의 변화와 논의의 발전을 담아내기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발행회수를 늘리는 문제를 고민했는데, 이것은 연구회 회원들의 부담이 증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원들의 의견을 물어보아야 했습니다. 다행히도 많은 회원들이 저와 비슷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 동안 연구회가 양적으로도 성장하였기 때문에 양질의 옥고를 모아 1년에 2번 발행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연구회 회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발행회수를 더 늘이는 것은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욕심 같아서는 1년에 4번 정도 발행하고 싶지만, 현재의 능력이 그 만큼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더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흥재** : 『노동법연구』 2호로 기억되는데, 선생님께서는 ‘산업구조조정과 경기변동에 따른 근로자의 보호’라는 논문에서 우리 사회·경제 전체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우리 정부나 사회가 선생님의 말씀에 좀더 귀를 기울였다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당시 노동법학계에서 ‘구조조정’의 문제가 본격적인 논의주제로 부각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그런 글을 쓰시게 된 특별한 동기가 있었습니까?

**김유성** : 너무 저를 띄워 주는 것 같군요. (일동 웃음) 당시 저로서는 우리 사회나 노사관계가 고도성장경제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것이 아닌가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경제가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으로 전환되어야 할 시점이 되었고, 그러한 시점에서는 새로운 규범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차가 국도로 진입하면 운행방법을 바꾸어야 하는 것과 비슷한 원리이겠지요. 다만 제가 주장했던 것들은 시간이 좀 걸리기는 했지만 그 중 일부는 정부에서 입법으로 수용한 것도 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의 제정이 대표적인 것이었지요. 우리 사회는 ‘과거’를 압축적으로 정리한 만큼이나 ‘미래’도 압축적으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경제성장과 그에 따른 노동운동의 발전 속도가 다른 나라의 예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빨랐으며, 구조조정과 그에 따른 사회적 해체의 속도도 그에 못지않게 압축적이고 빠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구조조정의 문제가 다른 나라의 예를 보건대 순식간에 우리 사회에서도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될 것이라고 생각하였고, 소박한 수준에서 이에 관한 문제제기를 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이철수** : 다른 학회나 연구 모임에 비해 우리 연구회는 상당 기간 외부적 활동을 자제해 왔는데요. 아무래도 그것은 선생님의 영향이 컸던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 데요?

**김유성** : 물론 제 생각도 그랬습니다만, 당시 회원들 다수의 생각이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현실과 노동법이론에 대한 공부가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부르게 외부적 활동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것이지요. 내실이 갖추어지면 자연스럽게 사회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연구회의 사회적 책임을 가볍게 생각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연구회가 10주년을 맞이한 1998년 이후부터는, 우리 사회의 주요한 노동문제나 이슈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또 의견을 개진하면서 나름대로 사회적 책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흥재** : 저도 과거에 비해 연구회가 공개적 활동에 비중을 높여 나가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선생님 개인적으로도 90년도 후반에 들어와 노사관계개혁위원회나 노사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대 사회적 활동에 보다 적극적이십니다. 비정규직문제, 특수직종사자 문제, 공무원 노조의 문제 등의 현안을 둘러싸고 노사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다소 소모적인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문제를 타개할 방법은 없습니까?

**김유성** : 글썽요, 많은 전문가들이 나름대로의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해결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만, 어디 왕도가 있겠습니까. 이해당사자가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심정으로 타인의 입장을 존중해 주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는 비단 노사갈등만의 문제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시대에 품성교육이 너무나 결

여되어 있음을 안타깝게 여깁니다. 교육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면 노사문제는 곧 교육문제와 그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노사정위원회에서 노사교육관련 합의문을 채택한 바 있는데, 개인적으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흥재** : 선생님께서는 첨예한 토론과정에서도 균형감과 포용력을 강조해 오시고 몸소 실천하셨는데, 그 뜻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문제를 말씀하신 기회에 서울대학교의 교육에 대해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유성** : 서울대학교는 그 동안 훌륭한 인재를 배출해 온 것은 사실이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쩌면 사회병폐에 대해서 서울대학교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서울대학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기대와 실망을 동시에 갖는 원인이기도 합니다. 해서 서울대학교는 무엇보다도 우선 자기반성에서부터 시작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대학교가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이라면 그 인재는 전문성·책임감·능력은 물론이지만, 특히 높은 도덕성을 갖는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년퇴임식에서 퇴임사로서 언급한 바이지만, 서울대학교는 “공부해서 남 주는” 전문성과 도덕성을 겸비한 인재를 배출하여 이들이 각 방면에서 지도자로서 활동하고 서울대학교는 이런 지도자들의 네트워크를 주도하는 중심축으로서의 위상을 갖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철수** : 시대와 더불어 대학의 모습도 많이 바뀌었는데, 실천적인 측면에서 서울대학교에 당부하고 싶으신 점은 없으신지요?

**김유성** : 시대의 변화와 더불어 대학의 모습도 많이 변모해 왔다는 이교수의 진단에 동의합니다. 이제 대학은 ‘상아탑’의 순수 아카데미즘만을 고집할 수 없는 시대가 왔다고 봅니다. 따라서 권위주의 정부 하에서 폄하되었던 정·학협동, 산·학협동 등의 관념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상황에서(here and now)” 요구되는 이론과 정보를 생산하고 이를 사회에 확산하고 나아가 후학들에게 전수함으로써 끊임없이 지식의 재생산을 도모하여야 할 것입니다. 실사구시의 정신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현재의 학문적 동향이나 대학 분위기에 우려되는 점이 없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순수학문의 퇴조를 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학·철



학·수학·기초의학은 학문의 몸체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학문은 궁극적으로 옳음과 진실에 대한 끝없는 구도의 과정이기 때문에, 기초학문의 뒷받침 없이는 그 모든 기술·지식·이론도 제한적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을뿐더러 열린 마음을 가지고 큰 길을 보여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통찰이 전제되지 않는 현상학적 분석에 안주하는 것은 정녕 서울대학교의 몫은 아닐 것입니다. ‘뺨을 위한 공부’에 학생과 전체 사회가 갈팡질팡 할 때에도, 자조어린 목소리로 학자들이 꾸념할 때에도, 항시 우리의 서울대학교는 백년지대계를 보고 학문의 통합성과 정체성을 추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능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지식정보화 시대의 가없는 국제경쟁에서 우리 국가와 사회가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순수학문의 존재는 필요합니다. 우리의 혼과 상상력이 투영되지 못한 어떤 작품도, 이론도 우위를 점할 수 없습니다. 순수학문은 여기에 필요한 상상력과 감수성의 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흥재** : 서울대학교의 교육정책이 바뀌어야 한다는 의미로 들리는 데요? 선생님께서 학장 재직시 도서관입비의 대폭적 확충 및 컴퓨터 지원 등의 여러 측면에서 교수들의 연구여건에 대해 상당한 배려를 하신 것으로 기억되는데, 연구 여건과 관련해서 하실 말씀은 없으신지요?

**김유성** :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을 추진할 것인가에 대해 저로서는 자신이 없습니다. 각광받는 분야나 인기있는 분야에 집중하고 투자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서울대학교라면 그에 그치지 않고 다른 곳에서는 하기 어려운 기초적인 학문분야를 꾸준히 지원하고 새로운 학문분야를 발굴하는 토대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기초순수학문 이 외에도 학제적·통합적 연구가 필요한 영역에 대해서도 서울대학교가 중추적·선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통일 문제나 아시아지역 문제 같은 것이 그러한 예가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교수께서 기억하신 대로 제가 학장을 역임하면서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은 교수들의 처우개선, 특히 연구 여건의 향상이었습니다. 재원이 한정되어 있는 관계로 쉽지는 않았지만 그러한 노력을 기억해 주니 고맙습니다. 정운찬 총장이 취임한 이후 교수들의 봉급이 많이 올랐는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직 교수들에 대한 실질적인 연구 지원에 있어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전체적으로 지적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탓인지 모르겠습니다만, BK 사업 등을 보더라도 학문후속세대의 육성에 보다 많은 관심을 두고 있지 현재 재직 중인 교수들의 연구 지원에 대해서는 매우 인색합니다. 예산과 재

정의 문제라면 당장 실현이 어려운 부분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만,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교수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한 방안을 심도있게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례로 연구비 사용과 관련하여 너무나 까다로운 규제를 가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고 필요하다면 서울대학교가 관련 당국과 성실한 협의를 거쳐 제도 개선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철수** : 제가 대학원 다닐 때에도 선생님은 아시아 노사관계 강좌를 개설하셨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당시 저로서는 우리의 문제와의 연관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상황을 보면 우리의 자본과 기술이 이곳에 많이 투자되고 있고 태국·말레이시아와 같이 민주화의 과정에 있는 나라들은 한국의 인권 신장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아시아학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유성** : 예 그렇습니다. 아시아는 지금 우리 한국을 보고자 합니다. 그 관심은 한국의 경제성장은 물론 민주화·기질·문화 등 다방면에 걸쳐 있습니다. 세계 10대 무역국에 든 한국의 위상은 이제 후진국을 돌보아야 할 때도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적·인류학적 측면에서 서방보다 보다 동질적인 우리의 아시아인과 호흡을 같이하고 공동의 지혜를 모아가는 길은 우리의 후손에게 좋은 선물이 될 것이라 봅니다. 학문적 교류는 그 첩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이 상당히 앞서가고 있습니다만 제 생각으로는 아시아인의 감정 등을 고려해 볼 때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우리 서울대학교가 서둘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법과대학 내에서 아시아법 연구센터의 설치도 계획 중이라고 들었는데 잘 발전해서 학제적 연구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흥재** : 선생님의 연구업적을 보면 1980년대에 이미 여성평등의 문제, 정리해고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노동법학의 실천성을 강조하신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우리 사회가 급격히 변화하고 노사관계 지형도 상당히 변모하였는데 노동법학이 가지는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김유성** : 저의 연구 목록을 보면 그 당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지 않은 주제를 대상으로 연구한 흔적을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제가 선견지명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전세계적인 노사관계의 전개과정을 살펴보면 어떤 보편성 같은 것을 추출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 몇 년 후에 다가올 우리의 현실을 예

상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다른 연구자들도 대체로 이와 유사한 경로를 거쳐 연구주제를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1980년대까지는 권위주의 정부 하에서 자율적인 노사관계가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로서는 단순히 미래를 예견한다는 의미 외에도 우리 사회에도 민주화와 법치주의가 도래하였으면 하는 염원이 배여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방금 이 교수께서 노사관계의 지형이 변했다고 하셨는데 저는 근대화 이후의 한국의 노사관계의 발전을 3단계로 정리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960년에서 1987년 대투쟁 이전까지의 효율성 강조의 시기, 민주화대투쟁 이후부터 1997년 노동법 개정까지의 형평성 모색의 시기, 그 이후 현재의 과정을 효율성과 형평성 조화의 시기로 도식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직도 노동세력이 정책결정과정에서 제외되거나 무시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노동사회학에서는 현재의 노동체제를 저보다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노동법제의 변천과정이나 현행법의 내용, 사회적 조합주의의 적극적 실험 등의 제 요인들을 감안하면, 제 개인적으로는 현재는 자본이나 노동 어느 일방이 절대적 우위를 점할 수 없고 정부도 효율과 형평을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철수** : 최근 노사관계에서 자주 거론되는 유연안정성(flexicurity)의 추구가 곧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평성과 효율성의 조화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사관계로드맵은 차치하고라도 비정규직 문제만을 놓고 볼 때도 노사간의 셈법이 너무나 다른 데, 선생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김유성** : 산업구조의 변화와 고용형태의 다양화로 인해 노사 갈등은 새로운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이는 곧 전통적인 노사자치의 원리만으로는 풀기 어려운 문제가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하죠. 무엇보다도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정비되어야 합니다. 노사간의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노력과 투자가 필요합니다. 노사 의식의 변화에만 기대하는 것은 마치 천수답에서 농사를 짓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그 성격상 노사가 대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호입법의 제·개정만으론 풀리지 않습니다. 법제 정비는 시작일 뿐 실제적인 측면에서 국가의 완충적·매개변수적 역할이 시급합니다. 덴마크의 경험에서 보듯 정부의 적극적 고용시장정책이 개재되지 않으면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할 묘약은 없을 것입니다.

**이철수** : 평소 선생님의 유화적인 모습을 생각하면 이 문제에 관해서는 보다 단호한 어조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께서 오래 전부터 노동시장법도 노동법의 체계에 포섭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셨는데 그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흥재** : 아쉽지만 이제 이야기를 마감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장시간동안 저희에게 좋은 생각을 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유성** :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요즘도 다소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기는 합니다만 정년을 맞이하였다는 실감이 나질 않아요. 욕심 같아선 노동시장법을 집필하고 싶은데 잘 될지 모르겠군요. 예전대로 서울대학교 노동법에는 열심히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서도 건강하시고 학문적 발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